

2022 4학년 격매전반

움직이는 학교

사전 자료집

비상연락망

이철수 010-6827-3623

이정상 010-4614-2030

강현영 010-2597-0285

숙소정보

딱따구리리조트 / 경기 양주시 광적면 현석로 313-44

우리 꽃자리펜션 / 강화 양도면 강화남로 1002번길 71-7

저어새둥지 펜션 / 강화 서도면 불음도길 224

비정규노동자 쉼터 꿀잠 /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51길 7-13

노근리 평화공원 / 충북 영동군 황간면 목화실길 7

우리들의 규칙

1. 아침식사 시간: 8시
2. 아침열기 시간: 8시 45분
3. 소등시간: 11시
4. 핸드폰 사용규칙 : 소등(11시)이후 이어폰사용, 다음 일정에 지장주지 않기, 12시 이후에는 수면보장하기. 차량이동시 음악 듣기 가능.
5. 각종 당번 (남1/여1)
 - 기상당번: 단오/채영
 - 소등당번: 규림/푸른
 - 청소당번: 아란/동연
6. 용돈규칙
 - 금액: 5만원
 - 자유일정 이외에 개인사용 금지
7. 식사준비
 - A팀(4명): 석현 룡수 지호 소은
 - B팀(4명): 민지 아란 규민 기범
 - C팀(5명): 규림 채영 동연 푸른 단오
8. 식사준비 시작시간
 - 아침: 7시
 - 점심: 식사 2시간 전
 - 저녁: 식사 2시간 전

일정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3	4
				3시까지 양주역 터미널집결	미선효순 평화공원 & 장파리마을	임진각
					감악산 출렁다리	오두산 통일전망대
5	6	7	8	9	10	11
강화로 이동	연미정 & 평화전망대	강화도 쓰담활동	강화도 역사문화 기행	볼음도 생태탐방 및 환경봉사 활동	출도, 서울로 이동	모란공원 참배
풍물시장	교동도 & 대룡시장	람사르 습지 & 매화마름 군락지	산마을 고등학교 교류		비정규노동자 간담회	기후행동,비정 규직연대,반전 평화연대 중 택일
12	13	14	15	16	17	18
모듬별 제로 웨이스트 활동	미선효순 20주년 추모제	밥퍼 봉사활동	위안부 수요집회 참석	성주 소성리	영동 노근리	휴식 및 발표준비
	김용균 재단 탐방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탐방			
	저녁영화상영		저녁영화상영			
19						
발표/ 집으로~						

식단표

			2 (목)	3 (금)	4 (토)	5 (일)
				간장계란밥	햄 & 두부구이	모닝빵 &잼
				매식	주먹밥(도)	
			교사특식 돼지고기 김치찜	소세지 야채볶음	제육볶음	카레
6 (월)	7 (화)	8 (수)	9 (목)	10 (금)	11 (토)	12 (일)
만두국	에그토스트	소고기 야채죽	계란찜	햄 토스트	주먹밥	시리얼
볶음밥(도)	매식	매식	라면	매식	유부초밥 (도)	매식
생선구이	돼지 김치찌개	교사특식 고기파티	매식	꿀잠에서 제공	떡볶이	간장불고기 &상추
13 (월)	14 (화)	15 (수)	16 (목)	17 (금)	18 (토)	19 (일)
야채참치죽	간장계란밥	과일 &요거트	소고기 미역국	모닝빵 &잼	시리얼	샌드위치
햄,계란 구이(도)	밥퍼봉사	매식	매식	매식	매식	
부대찌개	교사특식 매식	차돌 된장찌개	매식	매식	부모님 찬스	

개인 준비물

- 신분증(청소년증 혹은 주민등본 혹은 여권)
- 도시락 통, 개인수저·젓가락, 텀블러
- 배낭(캐리어 x)
- 작은 가방(크로스 가방)
- 모자, 운동화, 샌들
- 비옷 혹은 우산
- 여벌옷/물놀이용 옷
- 개인약품
- 티머니 카드/체크카드
- 필기도구
- 손수건/쿨토시/썬크림
- 수건
- 칫솔

공용준비물 - 학교에서 준비

- 샴푸/바디워시/치약
- 세탁세제/설거지세제
- 수세미/텀블러 수세미
- 학교노트북
- 비상약품/모기약
- 학교 자료집/판플렛
- 밥솥
- 손세정제
- 체온계
-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충전줄
- 피켓용 폐박스, 가위, 풀, 색지 등

우리가

**바문하
온글**

단체 소개

1.판문점

김단오

1953년 생성된 판문점은 서울에서 북쪽 60km, 개성에서 동쪽 10km,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위에 걸쳐져 있는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입니다.(공식 명칭은 군사정전위원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표기상으로는 비무장지대라고 되어 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라는 42대 미 대통령인 빌 클린턴의 발언과 같이 실제로는 주둔하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 미군, 조선인민군(북한군), 중국군 모두 무장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2.미선 효순 평화공원

김단오

미선 효순 공원은 2021년 완공된 고(故) 미선이와 효순이를 추모하기 위한 평화공원이다.

3.장파리 마을

철수t



- 지형이 ‘마루처럼 길다’ 해서 장마루라고도 불리는 장파리 마을은 6·25전쟁 전에는 한강변 긴 언덕이 침녕쿨로 뒤덮일 정도로 침이 많아 침마을로도 잘 알려졌다지만 당시 여느 마을과 같이 가난에 찌든 곳이었다.
- 장파리는 서울에서 불과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지만 비무장지대(DMZ) 인접지역으로 각종 제약에 묶여왔다. 민통선이 마을을 둘로 갈라놓고 임진강도 50년 동안 이용하지 못했다. 이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로서 과거 미2사단이 주둔했으며 1968년 무장간첩 김신조 일당이 서울까지 잠입을 했던 통로다.
- 주민은 대부분 전쟁 이후 마을에 정착했다. 영화 ‘장마루촌의 이발사(1959)’, TV 드라마 ‘형제의 강(1996)’, ‘봄날은 간다(1997)’ 등 50~60년대 도회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 1971년 미군이 동두천으로 철수하기 전까지 미2사단이 주둔했던 곳으로 당시에는 도시가 활기찼지만 미군의 철수이후 현재는 몰락했다.

4.리비교(북진교)

철수t

- 6.25전쟁 당시 휴전협상이 진행되면서 임진강 북부지역에 병력과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1952년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8개월만인 다음해 1953년 7월 4일 미국독립기념일에 맞춰 준공. 리비교는 높이 13.5m에 폭 6.6m의 교각 8개, 2차 선로로 미군 제2공병여단에서 가설했다.



6.25전쟁 때 미군이 임진강에 건설한 10여 개의 다리 중 리비교가 유일하게 남았다. ‘리비교’의 명칭은 6.25 전쟁 초기에 대전 전투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부대원을 구한 조지 D. 리비(George D. Libby) 중사를 기리기 위해 지어졌다. 북진교라고도 불린다.

5.라스트찬스

철수t



- 장파리와 연풍리는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발전한 시가지였다. 전쟁으로 초토화되고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들었던 시절, 미군부대 주변에는 먹을 것뿐만 아니라 돈이 넘쳐났고 일자리도 있었다. 미군부대 주변에는 세탁소, 옷가게, 신발가게, 사무소, 클럽, 극장을 비롯한 여러 가게와 편의시설이 들어섰다. 이 외국인 군부대 부근에는 외국군인들의 여가 시간을 위한 향락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라스트 찬스도 대표적인 유흥시설이었다.

- 라스트 찬스는 건물양성화 시기인 1964년 이전에 만들어졌어도 당시에는 획기적인 이집트, 그리스 신화를 부조로 장식된 10여개의 벽화와 건물이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2021년 11월,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6.재건학교

철수t



- 당시 학교를 못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미군들과 지역 청년들이 공부를 가르치던 학교가 있었다. 아직도 건물은 남아 있다.

- 곧 무너질 것 같은 단층 건물 외벽에 '1970년 마이클 중령이 지휘하는 미23연대 1대대가 지역 청소년들의 공부를 위해 지었다'고 희미한 영문으로 적혀 있다. "껌팔이, 구두닦이, 소매치기, 펌프(투쟁이)가 낮에는 먹고살겠다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밤에는 잠시 책상 앞에 앉아 공부했던 곳이라고 한다.

<그외 장소>

- 장마루극장
- 장마로촌 정미소
- 천주교 (적성성당)장파공소

7.dmz평화의 길

김단오

dmz평화의 길은 강화, 김포, 파주, 고양, 양구, 화천, 고성a, 고성b, 철원, 연천, 인제코스 이렇게 11개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는 평화 순례길입니다. 남북 정상은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때문에 dmz를 국민에게 돌려주고자 해당 평화의 길 코스들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DMZ에 평화를 공고히 정착시키고, 접경지역의 번영·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DMZ 평화의 길을 추진합니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8.도라산 전망대

김단오

도라산 전망대는 1999년 송악산 OP 폐쇄에 따라 대체 신설되었으며, 북한의 생활을 바라볼 수 있는 남측의 최북단 전망대입니다. 32대의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어 개성의 송학산, 김일성 동상, 기정동, 개성시 변두리, 금암골 등을 망원경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곳이며, 날씨가 맑은 날에는 개성공단까지 볼 수 있습니다.



9.임진각

김단오

임진각은 남북 분단 전 한반도 북쪽 끝 신의주까지 달리고 있던 기차가 멈추어 전시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망배단이 있는데 망배단은 휴전선 북쪽에 고향을 가진 실향민들이 매년 설날과 추석 때나 가족이 보고 싶을 때 고향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이곳에서 이북에 계신 부모, 조부모에게 배례하는 장소입니다. 소식이 끊겨 생사도 모르는 고향 가족을 애타게 찾는 이산가족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국 내외의 수백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 자유의 다리, 군 병커를 활용한 전시체험관, 평화의 종,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등이 있습니다.

10.임진강역

김단오

임진강역은 남북 분단으로 인해 경의선 구간에서는 민간인 신분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최북단의 역입니다.

도라산역은 민통선 안쪽에 있어 군사통제 구역이라 특별한 사유 없이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11.오두산 통일 전망대

김단오

1992년 개방된 오두산 통일 전망대는 그 정상에 있는 전망대에 오르면 발밑에서 남쪽에서 흘러온 한강과 북쪽에서 흘러온 임진강이 합류하여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절경과 눈앞에 바로 보이며 북한 황해도의 산천과 주거,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분단의 현장에서 통일의 꿈을 키우는 대표적인 통일 교육의 장’이라고 합니다. 외, 내 국인 2,0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명소입니다.

12.적군묘지

김단오

적군묘지는 6.25 전쟁 중 각지에서 전사한 북한군 및 중국군의 유해 및 이후 한국에 침투했다가 사살당한 무장공비 유해들을 한데 묻은 묘지입니다. 휴전선과 매우 가까우며 공식적인 명칭은 ‘북한군/중국군 묘지’입니다. 1996년에 묘역이 구성되었으며, 한국전쟁 이후 남한 내 격전지에서 발굴한 조선인민군(북한군) 및 중국군의 유해가 모두 여기 묻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고 인도주의 정신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건설하였습니다. 자국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적군의 유해를 모아 이렇게 묘지를 만든 건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13.강화도시민연대 소개글

서지호

강화도 시민 연대 단체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1 492동 1호 남궁의원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화지역의 생태와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운동을 총괄하고 이끄는 시민 연대 단체이다.

1997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까지 강화갯벌센터를 운영하며 강화 생태환경 교육,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미세플라스틱 조사 등 강화지역 전체 생태계의 변화를 감시하며 문제가 생길 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 중이다.

또한, 유해식물과 유해 동물 제거역할 또한 맡아 수행하며, 지역 주민과 아이들에 대한 강화도의 갯벌, 생태에 대한 교육 또한 진행 중이다.

14.밥퍼 나눔 운동

강규림

밥퍼는 다일공동체에서 하는 활동 중 하나이다. 다일공동체를 설명해 보자면, 다일공동체는 1988년부터 밥상나눔을 시작으로 전 세계 11개국 21개 분원에서 밥처/빵퍼(급식지원)와, 꿈퍼(교육지원), 헬퍼(의료지원), 일퍼(자립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이다.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웃에게 조건없이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양식을 지원하고 온 힘을 다해 실천하며 행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밥퍼 나눔 운동은 다일공동체의 오늘을 있게 한 최초의 사역이다. 한 끼니를 걱정하는 이웃들을 위해 밥을 지어 청량리 아래에서 함께 나누며 마음까지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일공동체의 초심이라고 볼 수 있다. 밥퍼 나눔 운동은 2005년 5월 2일을 기점으로 범국민 캠페인으로 전환되었다. 다일공동체는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는 때까지 더 나아가 한 민족이 함께 밥상에 앉아서 밥을 퍼줄 그 날을 꿈꾸며 힘찬 발걸음으로 걸어갈 것이라는 다짐을 가지고 있다. 밥퍼 나눔 운동은 주소는 서울시 동대문구 황물로 8이며, 밥퍼의 서비스의 내용은 무의탁 노인, 행려자, 노숙인 등에서 무료 점심 제공이다. 하루에 1,000명에서 1,200명 씩 밥퍼 봉사에서 끼니를 해결한다.

15.기후보호기업

최규민

현시대는 기후위기 시대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실천과 노력을 해야하는 시대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바뀌려면 다수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유행 또는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이유에선지 최근 들어 친환경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먼저 창립시절부터 친환경 가치관이 세워졌던 유명한 기업들을 알아보고, 이후에 창립 시절부터 친환경 브랜드인 것은 아니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을 알아보자.



-프라이탁-

리사이클링 패션 기업이다. “프라이탁”은 오래된 트럭 방수천을 기본 원단으로 사용하고, 자전거 바퀴 속 고무, 폐차의 안전벨트를 더해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브랜드이다. 창립역사는 ‘프라이탁이라는 성을 가진 형제가 날씨가 변덕스럽다고 유명한 취리히에서 살다가 자신들의 미술용품과 작품을 보호해줄 튼튼하고 방수가 되는 가방을 찾다 트럭 방수천과 안전벨트를 주워 직접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요즘 기후위기 트렌드에 잘 어울려지기도 하고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깔끔하고 빈티지한 감성의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방, 지갑등등을 판매한다. 인기가 매우 많은 브랜드이다. 제품들의 가격은 매우 비싼 편 (쉽게 버리지 말라는 뜻일까?)



F51 달라스
96,000 원
96,000원(13%)
배송정보
하루
배송대당



F305 ROY_O
362,000 원
362,000원(13%)
배송정보
하루
배송대당

patagonia

-파타고니아-

아웃도어 용품 기업이다. “파타고니아”는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교감을 지속할 수 있는 자연을 보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자신들의 제품은 리사이클링, 수선이 쉽게 가능하도록 단순하고 또한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몇세대나 걸쳐 입을 수 있는 내구성으로 친환경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브랜드이다. 창립역사는 자연에서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고 좋아하는 이본 쉬나드라는 사람이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성을 느껴 환경적인 모토를 가지고 설립하게 된 기업이다. 우리학교 사람들도 몇몇 제품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외국 기업이다. 보통 판매하는 것은 아웃도어용 의류와 용품이지만 평소에도 입을 수 있는 의류도 판매한다.



Mens Stretch Terre Planing Hoodie
₩179,000



Mens R1 TechFace Jkt
₩249,000



Mens SST Jkt
₩649,000



Mens Calcite Jkt
₩449,000

ecostore

Love your family, Love your future
-에코스토어-

친환경 샴푸, 바디워시, 세척제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에코스토어”는 안정성과 환경을 위해 지속가능성이 있는, 안정성을 인정받는 식물성 원료와 엄선된 친환경적인 원료들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든다. 브랜드의 창립역사는 곳곳에 시냇물이 흐르는 산림 자연 속 생태마을의 한 일원이었던 말콤과 멜라니 랜즈 부부가 이 환경을 보존하고 싶어 설

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에코스토어”는 여러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대강 ISO9001, ISO14001, Enviromark Diamond, CarboNZero 인증을 받았다. 대중성 있고 확실한 친환경 인증이다.



이제 창립 시절부터 친환경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기업들을 알아보자

-풀무원-

풀무원하면 친환경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완전한 친환경 브랜드는 아니다. 이유는 애초에 식품을 친환경으로 팔려면 채식 제품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들의 노력으로는 채식만두와 비건라면을 판매한다는 것과 판매하는 제품을 배송할 때 재활용 포장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풀무원은 자체 식품연구소가 존재하는데 이 연구소가 미국 “LEED”라는 미국그린빌딩위원회가 제정한 인증기준에 통과해 인증을 받았다고 한다. 인증을 받게 된 이유는 옥상에서 비를 받아 재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건축을 하여 LEED 인증 기준 전체 물 사용량의 73%를 절약했다고 한다.

-아이시스ECO-

대기업인 “롯데칠성음료”가 2020년도에 출시한 지속가능성이 있는 생수이다. 생수라면 플라스틱 페트병에 담겨있기 마련인데 보통 라벨이 찢듯하게 붙여져 있어 떼어내기 매우 힘든 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플라스틱 페트병 재활용률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롯데칠성음료”가 기존 “아이시스” 생수에서 라벨을 없애고 오로지 각인으로만 로고를 박아넣어서 무라벨 생수를 만들어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있는 생수를 위한 한 걸음이 될지도 모르겠다.

-현대, 테슬라, 기아, 볼보-

요즘 기후위기 시대에 힘입어 전기차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기업들이다. 현재 시점에서 전기차를 사용하는 것은 친환경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발전방식이 아닌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에서 전기를 생산해오고 그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기차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걸 지연시키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방식이 보편화되었을 때 급하게 전기차를 상용화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천천히 같이 바꾸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금까지 소개한 기업들 말고도 여러 가지 친환경, 친환경을 실천해보고 있는 기업들은 찾아보면 많이 나올 것이다. 내가 소개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유명세와 지속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들이었다. 사실 친환경 브랜드는 어느 한 분야에 밀집되어 있다. 바로 샤워용품과 생필품을 생산, 판매, 유통하는 기업들인데 그러니까 샴푸, 바디워시, 치약, 세제등등 우리 생활에 아주 근접해있는 생필품들을 생산, 판매, 유통하는 기업들 말이다. 이러한 생필품 분야에 친환경 기업이 가장 많이 존재한다. 이유는 아마도 지구를 위해 한 걸음부터 시작하자는 취지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생각해보자. 우리가 당장 환경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말이다. 쓰레기 분리배출, 일회용품 쓰지 않기등등 이러한 형식들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친환경 샤워용품, 생필품 사용하기다. 이게 얼마나 실천하기 쉬운 일인데 왜 사람들은 도전하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 의문점이 든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여러 가지의 친환경 샤워용품, 생필품 기업들을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이번에 새로이 제정한 “환경부 친환경 제품 리스트”를 보면 한방에 그 기업들이 정리되어있기 때문이다. 열심히 짜놓아 났으니 한번보길 추천한다. 감사

16.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여민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시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쟁과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연대하고 행동하는 박물관입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아이들이 자라길 바랐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의 오랜 염원은 국내외 시민들의 공감과 불려일으켜 모금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나긴 여정을 지나 마침내 2012년 5월 5일 어린이날, 전쟁과여성인권 박물관은 미래세대와 시민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어 문을 열었습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의 역사와 기억을 알리고, '여성, 인권, 평화'를 향한 현재의 활동을 기록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전하고자 합니다.

17.수요집회 & 정의기억연대

임소은

날짜 : 6월 15일

명칭 : 1548차 수요시위 (수요집회)

시간 : 12시~13시 (약 1시간 동안 진행함.)

장소 : 본대사관 앞 '평화로'

우리가 하는 활동

-피켓 만들기

문구 : 일본은 고개 숙여 사과하라,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나의 청춘을 돌려주십시오, 일본 정부는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하라! 등등

-소녀상 지키기

지키는 방법 : 땀 닦아주기, 부채질해 주기

-몸짓

평화 만들기

-연대 발언

수요집회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되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이행 등 문제 해결 그리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요구해왔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알려내고, 피해자와 시민들이 연대하는 장소,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공간, 여성인권과 평화를 외치는 장, 국경을 넘어선 연대의 장으로 확대되었다. 수요시위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하고, 18 곳의 네트워크협의회¹⁾를 비롯해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일반 시민들이 주관 및 참여하여 28년째 이어오고 있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역사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폴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필리핀, 태국, 미얀마 등 전 세계 약 23개국 60여 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참여로 이끌어 온 세계 연대의 매개체다. 이렇게 뜻 깊은 수요시위를 통해 정의기억연대는 일본 정부에 일곱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1) 일본의 통산성 산하 조직으로, 비디오텍스나 피시 통신처럼 전자 네트워크 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체

하나. 전쟁범죄 인정
 둘. 진상규명
 셋. 공식사죄
 넷. 법적배상
 다섯. 책임자 처벌
 여섯. 역사교과서에 기록
 일곱.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그림-수요집회 참여 중인 사람들.

정의기억연대란?

(장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11길 12 1층)

1990년 37개 여성단체의 결의로 발족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015한일합의무효화와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100만 시민들의 참여로 2016년 설립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과 2018년 7월 11일 통합하여 현재는 정의기억연대가 되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부터 세상에 알려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할머니들께서 끊임없이 외쳤던 메시지를 이어받아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정의기억연대의 목표

- <목표 1> 진실·정의를 위해 앞장서고 연대한다.
- <목표 2> 여성·인권·평화를 기록하고 기억하고 교육한다.
- <목표 3> 투명하게 소통하고 튼튼하게 한다.

18..제로 웨이스트 샵

박석현

서울지역 제로 웨이스트 샵 소개합니다.

제로 웨이스트는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폐기물을 줄이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은 바로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은 이렇게 재활용품을 잘 활용해서 친환경적으로 하는 샵 인걸 딱 봐도 알겠죠? 그래서 서울 근처에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샵 5개를 선정해봤습니다.

1. 알맹 상점: 서울 마포구 망원동
2. 알맹 상점 리스테이션 서울 중구 봉래동2가
3. 제로 웨이스트 샵 세컨드페이지 : 서울 송파구 가락동
4. 원점: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5. 지구 샵 제로 웨이스트 홈: 서울 마포구 연남동



19.꿀잠

이기범

꿀잠은 비정규노동자, 해고노동자, 사회활동가 등 다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쉬었다가는 쉼터이며, 이야기하는 사랑방이다. 문화예술과 만나는 장이기도 하다. 지방에서 서울로 집회에 참여하러 오신 분들이 숙소로 사용하신다.



20.모란공원

이기범

대한민국의 공동묘지 중 하나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에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설 공동묘지다. 약 13,000기의 묘소가 있는데, 민주화 · 노동운동가들도 별도의 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1966년부터 조성에 들어갔고 1969년에 안장을 시작하였다.

21.김용균 재단

이기범

김용균 재단은 2018년 12월 10일 청년 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은 회사의 작업지시를 따르다가 사망한 이 일 때문에 더 이상에 죽음의 행렬을 끊어내기 위해 '비정규직 이제 그만'을 외친 노동자들이 모여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어 내기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22.노근리 평화공원

강아란

6.25 전쟁 발발 직후인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미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200-300명이 학살된 사건을 추모하는 공원이다. 이곳에는 노근리 학살사건의 전모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과정을 전시하고 있는 평화기념관을 비롯해 교육관, 그리고 4만여 평 정도의 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23.성주

김동연

성주군은 경북의 서남에 위치하여 지형은 대체로 원형을 이루며 동쪽으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칠곡군, 서쪽으로는 김천시와 경남 거창군 남쪽으로는 고령군 및 경남 합천군, 거창군, 북쪽으로는 김천시와 칠곡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북쪽은 낙동강과 그 지류 하천이 형성한 평야지대로 양분되어 있고 낙동강 및 대가천 연안의 사질양토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성주군은 성산가야와 유교 문화 역사를 간직한 선비의 고장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특산물인 참외는 전국 최고의 품질과 최대의 생산량을 자랑하며 웰빙시대에 발맞춰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있다.

중부내륙고속국도의 개통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과 해동 명산 가야산의 수려함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환경이 있는 고장이며, 대구, 구미, 김천시 등에 인접하여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원불교 성주 성지

위치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위치한 원불교 성지. 소태산 박종빈 대종사 열반 이후 법통을 계승한 정산 송규 종사와 그의 동생 주산 송도성 종사가 탄생한 곳이다.

주제별

개인발제

기후위기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박석현

기후위기란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시스템의 붕괴를 말하는데, 기존의 환경문제와 달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핵심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온실가스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경제규모의 확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빨랐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배출원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으로 구분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주된 배출원은 에너지 부문이다.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총 온실가스의 87%에 달한다. 한국도 1990년에서 2018년 사이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배출량이 163% 증가하였다.

쉽게 말하면 인간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는 방법

1. 냉장고에 음식물 가득 채우지 않는다.

냉장고는 매달 10~15%의 전기세를 차지하며, 음식물로 가득 채워진 냉장고의 전력 소비량은 더욱 높다.

2. 가까운 거리는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을 탈 때는 천천히 달려야 합니다.

3. 나무를 심되 물을 적게 줍니다.

나무를 심으면 바람을 막아줄 뿐 아니라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냉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유기농 제품과 제철식품을 먹습니다.

해충을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은 탄소를 땅속에 머금고 미생물을 죽입니다.

5. 수돗물을 가지고 물장난 하지 않습니다.

물은 생활 속에서 조금만 조심해도 많은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잠들기 전 전원은 모두 끄고 잠자리에 듭니다.

전원도 쉬게 합시다.

7. 음식은 맛있게 먹고 남기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질수록 온실가스도 늘어납니다.

8. 집안온도는 미지근하게 합니다.

여름과 겨울에 2도를 낮추거나 높여서 생활하면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9. 재활용품을 구매합니다.

10. 물건은 재활용합니다.

안 쓰는 물건은 바꿔 쓰고, 꼭 필요한 물건만 사서 씁니다.

적게 사면 살수록 에너지를 아끼는 셈입니다.

이런 실천도 있겠지만 내가 논문을 쓰면서 생각이든 것은 나 하나가 기후위기를 생각해서 지구가 바뀌겠어?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충분히 나 하나가 하면 옆에 사람도 저절로 하게 되고 그게 수 십명 수 천명이 되는 걸 이번 논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

미세먼지와 탄소배출 주범 화력발전소의 문제점

최규민

이 발제의 시작으로 먼저 화력발전소의 정의는 이렇다. <화력발전소는 석탄, 천연가스, 중유 등의 연료를 태워서 물을 고온 고압의 증기로 만들고, 이 증기로 터빈을 회전시키며, 최종적으로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말합니다.²⁾>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물을 고온고압의 증기로 만들기 위해 석탄, 천연가스 등의 연료를 연소시켜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 연료를 연소시키게 되면 메탄,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현재 환경단체와 독일 같은 유럽 선진국들이 화력발전소를 없애고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화력발전소의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그렇다. 그럼 온실가스 배출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온실가스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지구에 태양이 보낸 적외선 복사열을 지구 안에 가두어 잘 나가지 못하게 하는 대기 중 가스 상태의 물질들을 말하는 단어인데 방금 설명했듯이 복사열을 나가지 못하게 하여 지구가 마치 뜨거운 온실이되게끔 해주어서 온실가스라고 부른다. 원래 온실가스는 나쁜 것이 아니다. 지구가 받은 열을 보존시켜 환경을 따뜻하게 조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가스들인데, 이게 없었다면 우리 지구는 추워서 생물이 살기 힘든 환경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이 온실가스가 적당량을 넘어서 매년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밑에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cpp의 통계 그래프가 있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환경단체와 선진국들이 화력발전소를 없애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화력발전소의 연소과정으로 인해 다들 아는 미세먼지라는 물질도 덩달아 배출하게 되는데, 미세먼지는 인체에 매우 해로운 물질로 구성되어있다. 지름이 2.5 μm 이하인 먼지가 미세먼지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 지름이 2.5 μm 이하인 먼지 하나당 황산염, 질산염 등 58.3% 소류와 검댕 등 16.8% 광물 6.3% 기타 18.6%로 구성되어있다고 한다.³⁾ 대부분의 물질이 사람에게 유해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 기상청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알려주고 마스크를 쓰길 권고했던 것이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항상 쓰고 있기에 비상알림으로 권고하지 않는 듯하다. 아무튼, 화력발전소의 문제점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알아본 결과 이 정도가 화력발전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거의 모든 국가 또한,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화력발전소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함께 알아보자. 대표적인 이유로 화력발전소는 원자력발전소와 수력발전, 태양광, 풍력, 지열발전 등등 여러 가지 발전소들보다 가성비가 좋다. 건설하는 비용에 비해 얻는 전력 생산량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건설비용이 값싼 이유는 우선 지형적인 면에서 다른 발전소들보다 덜 고려를 해도 된다는 것이다. 대충 원자력과 풍력발전소만 보아도 원자력은 냉각수를 끌어올 바다 부근이어야 하고 풍력발전소는 바람이 잘 부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형적인 면에서 타 발전소들보다 제약을 받지 않아 대도시 근처나 공업 단지 등 전기가 많이 소비되는 지역 부근에 설치할 수 있어 생산한 전력을 송전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화력발전소가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현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발전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경제적으로는 맞는 선택이라 할 수 있지만, 요즘 같은 당장 앞을 보는 것이 아닌 좀 더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는 시대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방식이 좀 더 맞는 답이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국가들에게 신세대들을 위한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달라고 개인적인 소견을 담는다.

2) 한국중부발전 <https://www.komipo.co.kr/kor/content/81/main.do?mnCd=FN100404>

3) 환경부 <https://www.air.go.kr/jbmd/sub30.do?tabPage=0>

기후위기 시대에 신공항을 건설하면 안 되는 이유

강규림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모두들 편리함을 추구함에 지구는 점점 높아만 가고, 높아가는 걸 애써 무시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지구의 온도는 1도가 상승하고, 꿀벌은 약 10억 마리가 사라졌으며, 빙하는 점점 녹아가고 있다. 2만 년 전 빙하기에서 만 년 전 빙하기까지 오는 시간은 총 만년이 걸렸지만 4도가 상승했다. 하지만 백년도 안 돼서 1도가 상승하였다. 약 25배나 빠르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신공항이 대거로 들어선다면 일단 많은 산림들을 다 밀고, 뜨거운 연기를 내뿜는 기구들이 들어서며 대기오염이 심해질 것이다. 여기서 대기오염이란 인공적으로 배출되어 인간 생활에 나쁜 영향을 주는 매연, 먼지, 일산화탄소 같은 물질이 공기와 섞이는 일을 말한다.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하여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의 문제시되고 있다. 표를 위해서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이 2014년 발표한 인천공항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 중 항공기 엔진이 80%로 대부분 차지했고, 근접도로교통 9%, 발전시설 등 고정오염원 6%, 지상조업장비 3%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하루 평균 678대의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외 195개 도시를 오간다. 어떻게 보면 인천 항공기들이 뿌려대는 대기오염물질도 늘어간다는 얘기다. 신공항이 들어서면 이것의 두 배 수치가 나타날 것이다. 인천공항의 항공기에서는 질소 산화물이라는 물질을 항공기 엔진에서 대부분 배출한다고 한다. 질소 산화물은 질소와 산소의 화합물로, 연소 과정에서 공기 중의 질소가 고온에서 산화되어 발생하며, 산성비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식물을 고사시키는 등 주요 대기오염 물질로 규제되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이며 항공기 엔진에서 80% 배출 운항횟수 늘면서 2배 이상 늘었다.

나의 생각으로도 현재 어느 나라든 신공항이 들어선다면 기후위기는 당연히 조금씩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신공항이 건설은 사치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공항은 총 15개가 있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설을 최대한 지향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든다.

정말로 지구는 빠르게 변해가며, 사람들은 편리함을 추구한다. 우리는 앞으로 더 고민하고 고민해야 된다. 나와 함께할 지구를 위하여.

<https://youtu.be/s8SiLt3ezmI> '비행기 여행의 부끄러움'을 아시나요?

<https://youtu.be/00Z6b2IMzXo> 지구가 뜨거워진다고?

<https://youtu.be/SI9hQMWLrA> 오존 구멍 지금은 괜찮을까?

<https://youtu.be/E4pWWyJdMV0> 올봄 북극 역대급 고온

<https://youtu.be/fsw0Flooqc8>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동물의 생명권은 왜 중요한가

이룡수

동물의 생명권, 즉 동물권은 왜 중요한가. 역사적으로 인류는 생존의 많은 부분을 동물에 의존해야 했고, 그러한 이유로 동물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그 필요성을 넘어서 과도하게 동물을 이용하거나 착취하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이러한 비윤리적인 대우와 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동물권을 존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197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동물권 개념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한 사람은 둘로 나뉘는데, 미국의 철학자인 톰 레건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철학자인 피터 싱어입니다.

톰 레건은 의무론자로서 믿음, 욕구, 인식, 기억, 미래에 대한 감각, 정서적 삶, 선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할 능력, 연속적인 정체성 등을 가진 모든 생명을 삶의 주체라고 정의하며 모든 삶의 주체들에게는 내재적인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도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톰 레건이 말하는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란 삶의 주체가 가지는 상품(가죽 구두, 털옷 등) 등은 동물을 그저 인간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권리를 존중하는 행동이 아니며 따라서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피터 싱어는 공리주의자로서 쾌락이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개체를 지각이 있는 존재라고 부르며 지각있는 존재는 이익 또는 관심사를 가지기 때문에 이 존재가 인간이건 아니건 간에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터 싱어가 말하는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란 공리주의의 원칙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기여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공장식 축산, 동물 실험, 서커스, 동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상품 등은 인간의 사소한 이익을 위하여 동물에게 엄청나게 큰 고통을 가하므로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둘이 주장하는 동물권의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르지만 동물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또, 인권과 동물권이 모두 함께 가야하는 것이지 인간의 복지가 동물의 복지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의 복지가 얼마나 완벽하게 돼야 동물의 복지를 생각할 것인가. 약자를 배려하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이나 동물이나 어떤 것이 우선일 수 없다, 동물이 야생에서 자연스럽게 살고 있다면 동물권을 주장할 여지가 없지만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동물권을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저지른 일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생명 존중 없이 인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용인된다면 흉악한 사회다. 고통받는 개체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방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코 인간과 동물을 나눠서 생각하면 안된다. 인간과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물이 너무 고통스럽게 착취당하는데 대변해 줄 이들이 하나도 없다면 비인도적인 사회라고 생각한다. 등 동물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동물권이 인간의 권리와 동등한 위치가 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동물권이 존중받고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작해서 동물권이 존중받고 보장받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채식

서지호

예로부터 인간의 주 식자재는 고기였고, 따라서 인간은 발전을 거듭할수록 가축을 기르고 도살하는 데에선 거의 정점의 기술 발전을 이루었다. 덕분에 인간은 상류층과 하류층 관계없이 모두 고기를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이젠 거의 모든 음식에 고기가 들어가며 영양 밸런스가 적절해지고 단백질 보충도 늘어 인류의 신체 성장은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추세가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그에 맞는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인데, 이것은 단순히 리스크가 아닌 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 하겠다.

요즘 많은 환경단체는 인간들의 무분별한 가축 사육과 도살 등의 행위를 기후위기에 비교하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후 위기와 고기가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러는 것일까? 지금부터 그 답을 설명하겠다.

현재까지 인간은 엄청난 수의 가축을 사육하고 도살하여, 섭취해왔다. 그런 과정에서 첫 번째로 부상하게 되어 사람들에게 알려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온실가스다.

온실가스라 한다면 보통 산업계에서 방출되는 온난화 가스를 말하는데, 가축 공장형 사육은 이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해내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그런데 이것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첫 번째, 사육장을 만드는 데 벌목되는 엄청난 수의 나무들이다. 기본적으로 나무는 지구 내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여 지구의 공기를 청결하게 하는 주요 산소 공급원이다. 그러나 그 많은 양의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선 정말 넓은 면적의 땅이 필요한데 현재 목장 건축으로 벌목된 나무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다.

두 번째, 이들을 기르기 위해 사용되는 사료.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공장형 가축들에겐 반드시 전염병 예방과 고기의 질을 위해 항생제가 포함된 사료를 먹이게 된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몸에 들어왔을 때 몸에 축적되어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 쉽다.

세 번째, 엄청난 밀집도를 자랑하는 사육시설에서 한꺼번에 배출되는 온실가스. 사실 이것이 거의 핵심이다. 전 세계에서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14%를 이 가축 사육시설에서 내뿜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신나간 수치를 보여준다. 이 온실가스는 우리가 아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적도권 국가 황폐화, 가뭄, 이상기후, 생태계 혼란(바뀐 날씨로 인한 서식지 파괴 등) 등등 수많은 피해를 초래하므로,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채식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사실 소수가 채식을 지향한다 해서 세계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매우 많은 수의 사람들이 채식을 해야 그 효율이 있기에, 다수의 채식을 유도하기 위해 채식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다. 채식은 하는 것 자체로도 득이 되는 것이 많다. 몸의 피부와 지방을 안 좋게 하는 물질로부터 멀어질 수 있으며, 좋은 체형을 만들 때에도 채식은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매우 많은 인구가 채식을 하게 될 경우, 위에 언급된 모든 부정적인 현상들로부터 지구는 조금이나마 해방될 수 있다. 동시에 요즘 부상하고 있는 동물권. 즉, 동물의 권리를 부각시키는 것도 가늠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기에 많은 단체와 학교, 그리고 우리 학교까지 채식자를 존중하고 채식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굳이 채식주의자가 아니더라도 평소 고기 먹는 양을 줄이면서 실천해보자. 우리의 지구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다.

강화도의 역사와 문화

백늘푸른

강화도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섬으로, 국조 단군의 개국과 역사를 같이하는 고장이다. 단군 왕검이 마니산 참성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드린 때부터 오늘날까지 숭한 역사가 펼쳐졌다. 나라가 위급해지고 풍운이 몰아칠 때마다 호국의 숨결이 가뻐던 곳이다. 강화도는 몽골의 침입과 병인·신미양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란을 겪은 역사유적이 산재해 있는 곳이다. 또한 외국의 문물이 강화도 바닷길을 통해 육지로 드나들던 관문이기도 했다. 강화도조약은 일제 침략의 기회를 주었지만 한편 근대화로 나아가는 길도 열렸다. 강화도 북단 바다는 NLL(해상경계선) 이 지나가는 북녘 땅을 마주한 곳이다. 이곳은 한국전쟁인 6·25 와중에서 자유를 찾아 내려와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강화도의 역사적 배경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뜻깊은 것이라 하겠다. 강화의 발전을 앞당긴 강화대교 서해안에 떠 있는 커다란 섬 강화도는 관광 명소와 역사 유적지가 널려 있다.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으로, 지난 1970년 1월 다리가 놓이기 전까지는 불편함이 많았다. 강화대교가 개통된 후 김포군 월곶면과 연결되었다. 다리가 연결되기 전에 김포 쪽 나루터에서 만조가 되면 차도선이 버스를 싣고 강화도로 건너갔는데, 이 다리의 건설로 인해 통행이 끊기는 등의 불편이 사라졌다. 평균 20분 정도 걸리던 배 타는 시간이 다리 개통으로 3분이면 건너가게 되었다. 당시로써는 획기적인 일로 강화도에 있어서 가장 큰 경사였다. 지금의 서해대교나 신거제대교, 진도대교, 완도대교 등의 다리에 비교하면 그 당시는 초라하고 자금과 기술력이 턱없이 부족한 시대였다. 37년 된 기존의 교량인 강화대교가 노후되어 97년 8월 새로 건설된 다리가 신강화대교이다. 다음으로 강화도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중에 하나인 ‘강화도조약’은 876년(고종 13년) 2월 강화도에서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다. 일본의 군사력을 동원한 강압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으로 공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이며, 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한다. 일본은 국내 사족(士族)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 구미 제국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선과 청나라의 시세를 살피어 부산항에서 함포 위협 시위를 벌이고 강화도에서 운요호 사건을 유발하였다.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 1876년 2월 27일 신헌과 구로다 기요다카 사이에 12조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은 부산과 원산과 인천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한다.

둘째, 치외 법권을 인정하여, 개항장에서 일본인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일본인은 일본인의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셋째, 조선의 연안 측량을 자유롭게 한다. 넷째, 조선과 일본 양국은 수시로 외교 사절을 파견하고 일본 화폐의 통용과 무관세 무역을 인정한다.

이후 조선은 일본을 견제하려는 청나라의 주선으로 미국과도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1882년),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과 우호 통상 조약을 맺기 시작했다.

갯벌의 생태적 가치

이채영

갯벌은 지구의 자전과 해와 달의 인력으로 발생하는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밀물과 썰물이 항상 드나들고 있다. 이로 인해 산소가 풍부하고 유기물이 많아서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조개나 게 같은 생물들의 먹이 섭취와 번식 장소가 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은 수심이 얕고 간석지가 발달하여 굴, 바지락, 조개와 같은 각종 어패류의 산란장 역할을 하고 있다.

갯벌의 흙 안에 사는 식물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성하고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갯벌은 어민들에게 경제적 수단을 의미하는 동시에 삶의 터전이다. 또 먹이사슬에 따라 이들을 먹이로 삼는 다양한 철새들이 휴식과 번식을 위하여 갯벌에 머무른다.

대표적인 갯벌 생물인 굴, 홍합, 가리비, 동죽, 바지락, 소라 등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갯벌의 생물 다양성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한다. 2019년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의 생물 다양성이 다른 세계문화유산 갯벌과 비교해서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무려 650종 이상의 생물이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서부의 갯벌에 살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갯벌에는 멸종 위기의 물새 22종과 해양 무척추동물 5종이 서식하며, 범계를 포함한 고유종 47종이 있고 갯벌은 주요한 철새의 기착지이기도 하다. 호주, 뉴질랜드로 남하하다가 쉬어가는 철새는 20종에 약 4만마리 가량이며 시베리아, 알래스카로 북상하다 우리나라 갯벌에서 쉬어가는 철새는 22종, 약 18만마리 정도이다.

갯벌에는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 대추귀고둥을 비롯해 멸종위기종 2급인 갯게, 흰발농게,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도요, 검은머리물떼새와 법정 보호종인 붉은발말뚝게, 해양보호생물인 흰이빨참갯이령이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들도 살고 있다. 하지만 저어새의 서식지로 알려진 새만금의 갯벌에서 1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공항을 짓기로 하는 등 개발로 인한 갯벌 파괴로 인해 갯벌 생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져가고 있다. 인천 갯벌의 경우 지난 100년간 여의도의 100배에 달하는 갯벌이 매립으로 사라졌으며 무안군의 흰발농게와 대추귀고둥의 서식지는 수로 준설로 크게 훼손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특히 강화도 남단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있는 강화 갯벌의 총면적은 무려 252km²에 달한다. 이 중 여차리-동막리-동검리를 잇는 남단 갯벌은 90km²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한다. 강화 갯벌은 한강, 임진강,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다. 이렇게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형성된 갯벌엔 다양한 생물들이 더 많이 살고 있다. 강화 갯벌은 특히 바다 오염을 막는 일을 한다. 수도권에서 뿜어대지만 걸러지지 못한 오염물질을 바다로 나가기 전 걸러주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 환경적, 생태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0년 7월 강화 갯벌을 천연기념물 419호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로 지정했다. 강화 갯벌이 저어새 번식지로서 중요하고, 흑두루미, 도요새, 물떼새 등 주요 철새들의 생존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판단했다. 수많은 바다 생물의 보금자리이자 희귀 철새들의 아늑한 쉼터인 셈이다.

이렇게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고 있는 갯벌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 점점 파괴되고 있다. 갯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우리도 갯벌이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막고 보호하며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제 식민지 약탈과 지배, 그리고 제국주의

여민지

먼저 제국주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제국주의란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적 지배력을 타국으로 확대하려는 사상과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다. 좀 더 알려면 산업혁명부터 알아야 한다. 산업혁명은 1700년대 기계가 없던 영국에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계를 발명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덕에 영국의 인기물인 목화 생산량이 늘어나고 수많은 기계들이 와트의 증기기계를 뒤이어 발명되었다. 유럽의 평민들은 부를 가지기 시작했고 귀족, 영주들이 지배하는 봉건체제가 붕괴되었다. 이것을 발단으로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되었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여러 국가의 왕정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1800년대에는 증기선, 기차, 군함이 발명되었다. 이로써 산업혁명을 이룬 국가와 못 이룬 국가 차이가 커지게 되었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산업혁명을 이루어 공장이 많아졌고 자원이 부족해졌다. 각국은 자원을 얻으려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 식민지 개척이 시작되었다!! 이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다. 일본이 조선의 식민지 약탈을 하게 되는 이야기는 무척이나 길다. 중국 일본 전쟁 등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일제 식민지 약탈의 이유를 열심히 알아본 나도 몇 줄로 요약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그냥 이걸 이 발제문에서 생략해야겠다.

자 다음은 일제강점기에 대해 설명하겠다. 일제강점기는 대충 3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면 쉽다. 1910년대 무단통치 1920년대 민족분열통치 1930년대 이후 민족말살통치 이렇게 보면 된다. 일본의 만행을 위주로 설명하겠다. 먼저 무단통치의 방법은 일단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짱 같은 거다. 총독이 육해공대장 인데 그 사람은 절대 권력자다. 그리고 헌병경찰제를 만들었다. 군인경찰이다. 군인경찰은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에는 교사가 칼을 차고 있었다.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다 막았다. 토지조사사업이란 것도 했는데 조선 땅을 뺏으려고 일정 기간 안에 땅을 신고하지 않으면 땅을 그냥 다 뺏는 거다. 회사를 지으려면 마찬가지로 신고해야했다. 그리고 조선의 곡식 같은 것을 잘 뺏기 위해 철도도 만들었다.

1919년에는 3.1운동이 일어났다.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식을 했고 그렇게 대한독립만세가 전민국적 시위로 확산되었다. 일본은 무력진압으로 대항했고 그로인해 시위는 더 거세졌다. 일본은 마을 전체를 학살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3.1운동으로 인해 일본은 통치방법을 무단통치에서 민족분열통치로 바꾸게 되었다. 그리고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은 이승만이다. 이제 새로운 통치 방법인 민족분열통치에 대해 설명하겠다. 일본은 문화통치라고 했지만 말로만이다. 일본은 친일파를 양성시키고 민족을 분열시키려 했다. 헌병경찰제(군인경찰)를 그냥경찰제로 바꿨지만 경찰 수만 많아졌다. 교육기회를 확대한다했지만 고등교육은 안했다. 근데 언론, 출판, 집회, 결사는 되게 했다. 이때 조선일보, 동아일보 생겨났다. 하지만 일본이 철저하게 검열했다. 신고해서 회사를 짓는 회사령도 폐지했다. 하지만 일본기업을 위한 것이다. 치안유지법을 만들었지만 독립운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였다. 그리고 산미증식계획 이라면서 조선 쌀을 뺏았다. 자 다음은 빠르게 다음 1930년 이후 민족말살통치를 설명하겠다. 통치방식이 바뀐 이유는 1929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때문이었다.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일본도 예외는 아니게 됐다. 일본은 한창 전쟁하고 다녔는데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기위해 한국인들 성을 일본 겔로 바꾸고 막 그랬다. 우리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고도 했다. 한국의 인력, 물자 다 뺏고 남자들은 강제징병 시키고 여자들은 위안부 시켰다. 이런 식으로 다 뺏었다. 이제 끝났다. 나는 일본의 만행만 썼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항을 많이 했다! 그냥 시위하고 이런 운동 말고도 국외에서 작전도 세우기도 하고 우리말사전을 만들기도 하고 종교활동과 문화활동 (대표적으로 윤동주)도 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도 세우고 (유명한 김구) 아무튼 그랬다.

일본군 성노예 전쟁범죄의 진상을 밝힌다

임소은

1910년 일본은 조선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고 35년간 지배하면서 우리 민족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1930년대부터 일본이 전쟁에 패할 때까지 일본군이 성욕 해결과 성병 예방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안부를 만들었다. 그래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가 주요 타겟이었다. 한국만 피해가 있던 것이 아니고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 심지어 네덜란드 여성들까지 위안부로 끌려갔다. 정확한 피해 인원은 파악되지는 않지만 8만 명에서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절반 정도가 조선인이었다. 일본군은 어린 여성을 끌고 강제로 따라오라고 했다. 반항하면 발길질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니며 강간당하고 결국 끔찍한 위안부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유도 모른 채 납치를 당한 경우, 일자리를 준다는 말에 속아서 간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매일 여러 명의 군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해야 했고 폭행을 당했으며 도망치려다 걸리면 죽임을 당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성노예로 살아야 했다. 위안부 피해자였던 정옥선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았다.

함경북도 풍산군 피발리에서 1920년 12월 28일에 태어났다. 13세였던 6월 어느 날 논에 나가서 일하시는 부모님의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마을로 갔다. 이때 무장한 일본군 한 명이 할머니를 붙잡아 끌고 갔다. 할머니는 주재소로 끌려가 여러 명의 헌병에게 강간을 당했다. 소리를 지르자 헌병들은 입에 양말을 쑤서 넣고 계속 강간을 했다. 소리 내어 울자 주재소장은 할머니의 왼쪽 눈을 때렸고 왼쪽 눈은 실명이 되었다. 열흘 쯤 지나서 혜산시의 군부대 막사로 옮겨졌다. 그곳에는 약 400명의 조선의 어린 소녀들이 있었고, 매일 일본군을 상대해야 했다. 어떤 날에는 하루에 40명을 상대해야 했다. 저항하면 일본군들은 폭행을 가하고 입에 냅마를 집어넣었다. 한 조선 소녀가 일본군에게 “왜 우리는 하루에 40명까지 되는 많은 병사를 상대해야 하나요?”라고 물었고, 그러자 사령관은 “그 소녀의 목을 베어라”라고 명령을 했다. 소녀들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손발이 묶여 못이 박힌 판 위에서 몸을 굴렸다. 결국에는 소녀의 목을 베었다.

다른 조선 소녀는 수차례 강간으로 인해 성병에 걸려 50명 이상의 일본군에게 전염이 되었다. 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군은 뜨겁게 달구어진 쇠막대를 소녀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어느 날 소녀들 40명을 트럭에 태워 뱀이 들어있는 웅덩이로 데려가 한 명씩 빠뜨리고 흙으로 덮어서 생매장했다. 할머니가 임신을 하였는데 자궁 껍 태아를 들어내 다시는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

그해 8월 27일 칼을 찬 군인이 “군인 1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라고 물었고 그때 손을 들지 않은 15명의 여성들은 다른 여성에 대한 본보기로 죽음 당했다. 발가벗겨진 여성을 머리와 발을 잡아 못 박힌 판자 위에 굴렸다. 피가 분수처럼 솟고 살덩이가 못 판에 너덜거렸다. 그다음 군인들은 못 판 위에서 죽은 여성의 목을 쳐 떨어뜨렸다. 여성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본 중대장은 “고기가 먹고 싶어 우는 구나”하고 죽은 여성의 머리를 가마에 넣고 삶았다. 그리고 나무 칼을 휘두르며 억지로 마시게 했다.

1933년 12월 1일에는 한 장교가 여성 자궁에 철봉을 꽂아 죽였다. 다음 해 2월 4일에는 매독에 걸린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장교에게 병을 옮겼다는 이유로 한 여성이 피살되었다. 일본군이 별경계 달군 철 막대를 자궁에 넣었고 여자는 즉사하였다. 뽑아낸 막대에는 살점이 달려있었다. 군인들은 죽일 셈으로 여성들에게 문신을 했다. 문신은 온몸에 새겨졌다. 마차에 실려온 여성들을 등에 땡개치는 모습을 머리서 보고 있던 한 중국인 남자가 일본인이 사라진 뒤 숨이 남아있던 여자 두 명을 옮겨 약 두 달간 간호해 주었다. 그래서 정옥선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겨우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다. 자식도 낳을 수 없는 할머니는 그 후로 외롭게 홀로 살게 되었다.

위안부 사건은 여성들에게 치욕적인 사건이라 피해자들이 쉽게 말할 수 없었다. 1990년대에 처음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해방된 지 45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된 지 42년 만이었다.

발제문을 작성하면서 잘 몰랐던 위안부의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 내가 생각한 위안부는 일본군에게 강간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몰랐다. 지금까지 그렇게만 생각한 자신이 부끄럽다. 우리 나이 때 끌려간 할머니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느껴졌다. 내가 만약 지금 위안소로 끌려가 위안부가 되었다면 어땠을까 싶다. 할머니들의 고통과 힘듦을 내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온전히 이해하진 못하지만 역사를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를 잊지 않도록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함께할 수 활동은 정의기억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요 집회에 참여하기, 위안부 관련 영화, 책 읽기 등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미선이 효순이 사건

김단오

사건 당일 2002년 06월 13일 14세 피해자 신효순과 심미선은 도로를 따라서 300m만 가면 있는 친구가 사는 초가집이라는 식당에 모여 의정부에 놀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졸업생이 1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초등학교를 나온 동창들이었습니다. 마침 다음날은 효순이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친구 5명이 모이기로 한 것이었죠.

사건이 벌어진 도로는 산을 깎아 만든 지방도로였기 때문에 따로 인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온다면 피할 곳이 없는 3.3m의 좁은 도로였죠.

이날 낮 10시 30분경에 피해자 둘은 이 도로를 따라서 친구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미군의 부교 운반용 장갑차량이 그 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차량 행렬은 선두 안내 차량 1대, 병력 수송 장갑차, 그 뒤로 사고 차량, 일반 공병 궤도 차량 3대, 후미 안내 차량 1대였습니다. 이때 맞은편에서도 전투차량 5대가 오고 있었고 사고 차량은 3.65m였기 때문에 해당 차량들도 간신히 부딪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넓이였던 것이죠. 이때 여학생 두 명이 도로를 걷고 있었고 사고 차량을 피해 가려다 해당 장갑차에 압사당해 사망합니다.

사건 당시 차량의 너비가 도로보다 넓었으며 무리하게 통행을 시도하려 했다는 점에서 피해 유가족들은 “예견된 살해 행위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7월 3일 운전병과 관제병을 과실치사로 미 군사법원에 기소했고 사령관에 사과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6월 28일 미군 책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함과 동시에 미국에서의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습니다. 또 그에 따른 한국 검찰의 조사 또한 시작됐죠. 하지만 미군 측은 신변 위협을 이유로 검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7월 10일 법무부는 사상 처음으로 미 측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으나 미국은 미군 공무 중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미국에 재판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또 미국이 이제까지 1차 재판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며 재판권 포기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미군 군사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미군 병장 두 명은 과실사고임이 인정되어 무죄를 판결받고 이후 무죄판결 5일 후인 11월 27일 미군은 사죄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을 보는 시각은 다양했습니다. “재판 판결 그대로 과실치사 사고일 뿐이다. 조의금으로 2억을 주었으며 이걸 그저 사고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다. 이 사건은 사고가 아니다. 미군은 멈추거나 발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또, 소녀 두 명이 죽었는데 과실치사로 무죄판결을 내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피해자 박미선양의 아버지는 사고 10년 후에 “사고를 낸 미군도 이제 편히 지내길 바란다.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미군이) 애들이 미워서 낸 게 아니지 않나. 얼굴도 모르지만, 그 미군들도 이제 마음의 짐을 덜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며 해당 미군들을 용서하는 듯 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제가 느낀 점은 미군이 왜 멈추거나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대체 왜 미군 재판에서는 두 명의 군인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는지 이렇게 두 가지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10년 이후에 해당 피해자 중 한 분의 아버지가 “사고를 낸 미군도 이제 편히 지내길 바란다”,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미군이) 애들이 미워서 낸 게 아니지 않나.”, “얼굴도 모르지만, 그 미군들도 이제 마음의 짐을 덜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하셨는데 이 말들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김동연

thaad 사드

사드를 설치하는 이유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때문에 설치

근데 사드는 과연 북핵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까?

사드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하나로 사거리 1000~3000km에 이르는 적의 준 중거리 미사일에 맞서기 위해 설계된 무기이다 대기권 밖에서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적 미사일을 고도 40~150km 사이에서 격추한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서 미사일이 낮은 궤도로 몇 분 안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는 효용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수도권 공격 주력 무기는 사거리가 160km 고도가 50km(미만)으로 사드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이 고도와 사거리 조절하여 사드의 요격 범위를 피해 공격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면서 사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북한의 노동미사일은 일본과 오키나와를 겨냥한 무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북한이 저각발사를 한다면 요격할 수 있지만 고각 발사를 한다면 사드로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습니다 고각 발사한 북한의 노동미사일 고도는 195km로 고도 150km인 사드로는 요격할 수 없다. 그러니 더욱 더 설치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사드를 배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한반도는 지금 세계유일의 신냉전체제이고 계속 북한을 견제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관리해 전쟁의 위협을 줄이 것이 상책이다. 또한 사드배치가 결정된 다음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북한은 발사했다. 그 의미는 어차피 사드를 설치해도 사드 레이더에서 벗어난 범위에 쏘면 못 막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벌이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사드는 남북관계를 더 악화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미국이 사드 설치를 원하는 이유는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사드가 확인할 수 있어서이다. 과연 사드는 우리나라를 위한 것일까 아님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일까

영동 노근리 사건, 이렇다

이기범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은 북한과 한국이 전쟁 중 1950년 7월 25일 ~ 7월 29일 사이에, 미군 제1기병사단 제7기병연대 예하 부대가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로와 쌍굴다리에서 민간인 피난민 속에 북한군이 잠입했다고 주장하며 폭격과 기관총 발사로 민간인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희생자는 사망자 135명, 부상자 47명 모두 182명의 희생자를 확인했으며, 400여명의 희생자가 대부분 무고한 양민들이었다. 현재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20여명이다. 사건의 전개는 1950년 7월 23일 정오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 마을에 소개명령이 떨어진다. 이에 주곡리 마을 주민들은 영동읍 임계리로 피난하게 되고 25일 저녁 주곡리, 임계리 주민, 타지역 주민 500~600명은 미 육군의 유도에 따라 남쪽으로 피난하게 된다. 26일 4번 국도를 통해 황간면 서송원리 부근에 도착한 피난민은 미 육군의 유도에 따라 국도에서 경부선 철로로 행로 변경, 피난을 계속하던 중 미 공군의 폭격과 기관총 사격에 의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 미군의 공격을 피해 피난민은 노근리에 있는 개근철교(쌍굴) 밑으로 피신하였고, 미 육군은 쌍굴 밑으로 피신한 피난민들에 대해 26일 오후부터 29일 오전까지 기관총 및 박격포 사격을 전개하였다. 2001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리턴 대통령이 유감성명을 발표를 했지만 이건 사건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다. 사과가 아닌 후회에 담긴 내용이었다. 과정에 대한 설명은 피하고 그저 피해자에 대한 애도차원의 성명을 발표했다.

하루나누기

1. **오늘의 기분은 몇 점? (1 -10) 그 이유는요?**

2. **오늘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3.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하루 나누기

1. **오늘의 기분은 몇 점? (1 -10) 그 이유는요?**

2. **오늘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3.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하루 나누기

1. **오늘의 기분은 몇 점? (1 -10) 그 이유는요?**

2. **오늘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3.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하루나누기

1. **오늘의 기분은 몇 점? (1 -10) 그 이유는요?**

2. **오늘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3.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하루나누기

1. **오늘의 기분은 몇 점? (1 -10) 그 이유는요?**

2. **오늘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3.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하루나누기

1. **오늘의 기분은 몇 점? (1 -10) 그 이유는요?**

2. **오늘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3.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하루 나누기

1. **오늘의 기분은 몇 점? (1 -10) 그 이유는요?**

2. **오늘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3.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하루나누기

1. **오늘의 기분은 몇 점? (1 -10) 그 이유는요?**

2. **오늘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3.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하루나누기

1. **오늘의 기분은 몇 점? (1 -10) 그 이유는요?**

2. **오늘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3.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하루나누기

1. **오늘의 기분은 몇 점? (1 -10) 그 이유는요?**

2. **오늘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3.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하루나누기

1. **오늘의 기분은 몇 점? (1 -10) 그 이유는요?**

2. **오늘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3.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하루나누기

1. **오늘의 기분은 몇 점? (1 -10) 그 이유는요?**

2. **오늘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3.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하루나누기

1. **오늘의 기분은 몇 점? (1 -10) 그 이유는요?**

2. **오늘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3.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하루나누기

1. **오늘의 기분은 몇 점? (1 -10) 그 이유는요?**

2. **오늘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3.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하루나누기

1. **오늘의 기분은 몇 점? (1 -10) 그 이유는요?**

2. **오늘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3.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하루나누기

1. **오늘의 기분은 몇 점? (1 -10) 그 이유呢요?**

2. **오늘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3.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하루나누기

1. **오늘의 기분은 몇 점? (1 -10) 그 이유呢요?**

2. **오늘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3.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하루나누기

1. **오늘의 기분은 몇 점? (1 -10) 그 이유는요?**

2. **오늘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3.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감상문을 써보자!

제목 :

감상문을 써보자!

제목 :

감상문을 써보자!

제목 :

메모(ㄹ'ㅍ'ㄹ)

메모(ㄹ'ㅁ'ㄹ)

메모(ㄹ ㅍ ㄹ)

메모(ㄹ ㅍ ㄹ)

메모(ㄹ'ㅁ'ㄹ)